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62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0. 8.

발 의 자 : 이인선·주호영·김소희
김상욱·이달희·조은희
박성민·정동만·박성훈
유영하·박수민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소지·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.

이에 알면서 소지·시청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면 수사기관이 더 높은 수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“알면서”라는 요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(안 제11조제5항).

법률 제 호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5항 중 “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”을 “청소년성착취물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·배포 등) ① ~ ④ (생 략)	제11조(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·배포 등) ① ~ ④ (현행 과 같음)
⑤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구 입하거나 아동· <u>청소년성착취</u> <u>물임을</u> 알면서 이를 소지·시 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.	⑤ ----- ----- <u>청소년성착취</u> <u>물을</u> ----- ----- -----.
⑥ · ⑦ (생 략)	⑥ · ⑦ (현행과 같음)